

영 화

“꿈작마! 웃음폭탄 터진다”

새 봄 극장가 코믹 영화 ‘열풍’

최근 2~3년간 흥행에서 가장 감세를 보이는 장르인 스릴러물이다. 반면 ‘가문의 영광’ 등 시리즈물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미디 장르는 주춤했다. 최근 들어 웃음 폭탄을 장착한 코믹 영화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오는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육혈포 강도단’은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얼핏 ‘마파도’를 떠올리게 한다.

극까지 밟으며 은행을 점거하는데- 나문희·김수미·김혜옥이 할머니 강도단으로 출연하며 코믹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임창정이 할머니들에게 비범을 전수하는 전문 은행 강도 역을 맡았다.

‘생 날선생’의 김동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반가운 살인자’(4월 6일 개봉)는 여기저기 사고만 터뜨리는 ‘꼴통 형사’와 늘 먼저 사건현장에 나타나서 형사를 골탕 먹이는 ‘수상한 백수’가 벌이는 좌충우돌 추격기를 그린 코미디영화

그린 코미디 영화다.

봉식이 좋아하는 영어학원 선생님 한정역으로는 영화 ‘추격자’, 드라마 ‘선덕여왕’의 서영희가 출연한다.

‘품행제로’,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각본가로, ‘천하장사 마돈나’의 감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해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페스티벌’은 명랑 색시 코미디물이다.

건전한 동네에 사는 수상한 네 커플의 엉뚱한 사생활을 그린 ‘페스티벌’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봤을 법한 성적 판타지를 유쾌하고 발랄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 기대감을 높인다.

신하균은 풍기문란 단속 경찰 ‘장배’ 역을 맡았으며 엄지원은 바이브레이터를 주문해 남자친구 장배를 혼란에 빠뜨리는 영어 강사 ‘지수’ 역으로 출연한다.

또 심해진은 우연히 보게 된 채찍과 수갑에 묘한 흥분을 느낀 후 은밀한 사생활을 즐기게 되는 단아한 자태의 한복집 주인 ‘순식’ 역을, 성동일은 순식을 신세계로 인도하는 절물집 주인 ‘기봉’ 역을 맡았다.

류승범은 예쁘고 어린 고등학생 자매가 매일같이 들이대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는 오렐 장수로 변신, 오랜만에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코믹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밖에 오달수가 관계자의 감독에 반한 고등학교 교사 광복 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펼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반가운 살인자’에서 20년 연기 인생 최초로 여자로 분장한 유오성.



신현준은 ‘조지와 봉식’에서 시골형사 봉식 역을 맡았다.

새 영화 **다어 존**



‘노트북’, ‘워크 투 리멤버’, ‘병 속에 담긴 편지’ 등을 쓴 니콜라스 스토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멜로 영화.

군 복무 중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은 존은 여대생 사바나를 우연히 만난다.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2주간의 휴가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는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에게 매일 편지를 쓰지만 군에 비

2주일간의 찬란한 사랑

그리고

운명을 바꾼 편지 한 통

상사태가 발생해 존이 복무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난다. 그 때 존에게 온 사바나의 편지 한통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게 된다.

영화 ‘맘마미아’의 아만다 시프리트와 채닝 테이텀이 주연을 맡았다. ‘E.T.’의 주인공 엘리엇을 연기한 헨리 토마스가 사바나의 새로운 연인 ‘팀’으로 등장한다.

‘드림걸즈’와 ‘페인’ 음악을 담당했던 데보라 루리와 ‘월스’의 주인공들이 결성한 듀엣 ‘스웰시즌’이 참여한 음악이 좋다. 주인공 아만다 시프리트 등도 직접 노래를 부른다. 미국 개봉 당시 ‘아바타’를 밀어내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돈 내놔” ‘육혈포 강도단’에서 총을 들고 은행털이에 나선 할머니 강도 김혜옥.

‘육혈포 강도단’ 열받은 세 할머니 은행강도 되다
‘반가운 살인자’ 꼴통형사 골탕 먹이는 수상한 백수
‘조지와 봉식’ LA 경찰과 시골 형사의 좌충우돌
‘페스티벌’ 수상한 네 커플의 엉뚱한 사생활 그려

‘육혈포 강도단’은 은행에서 강도에 게 돈을 빼앗긴 할머니들이 돈을 되찾기 위해 은행강도단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코미디.

친구 사이인 세 할머니는 8년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인생 마지막 소원이었던 하와이 여행을 위해 여행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 하지만 은행 강도단이 들이닥쳐 피같은 돈을 빼앗아 달아나고 은행측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자 그들은 은행을 털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전문은행강도를 찾아가 할머니들은 은행강도 특공 훈련을 시작하고, 인질

다. 주로 강한 남자 역할을 도맡아 했던 유오성이 연기 인생 20년 최초로 여장을 하는 등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영화 ‘국가대표’의 김동욱이 형사 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시리즈를 통해 코믹연기를 선보였던 정준호와 신현준은 ‘조지와 봉식’으로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다.

‘조지와 봉식’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된 조지(정준호)와 시골형사 봉식의 좌충우돌을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수원점 (031) 752-9940
 송정점 (062)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천기누설
운명사주
 운명 2만 원 특별 5만 원
 (062) 222-9670
 010-2683-9766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www.gj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기간	2010.3.15(일)~3.28(일)	2010.3.15(일)~3.28(일)	2010.3.15(일)~3.28(일)
연수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대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비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신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수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